

독수리의 오시오 고민 상담소



정유리 지음, 최미란 그림

초등학교 운동장에 난데없이 들어선 대머리 독수리의 오시오 고민 상담소!
구름이네 학교에 반말을 해도 괜찮은, 친구처럼 편안한 독수리가 나뭇가지를 열기설기 엮은 이상한 상담소에 상담 선생님이로 부임했다. 아이들의 속마음을 들어주고 사이다 해결책을 날려 주는 독수리는 나날이 인기 폭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독수리가 사라졌다! 구름이와 친구들은 갇힌 독수리를 구출하기 위해 야생 동물 구조 센터를 찾아 가는데... 이 아들의 독수리 구출 작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 주제 고민을 나누고 공감하며 따뜻한 말 건네기
- 권장 차시 11차시
- 대상 학년 3~4학년
- 관련 주제어 고민, 상담, 공감, 친구 관계, 따뜻한 말, 낭독극, 핫시팅

국어

- 교육 과정 연계 [4국01-03]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듣고 말한다.
- [4국01-06] 예의를 지키며 듣고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 [4국02-05]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 [4국05-03]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고 표현한다.
- [4국05-04]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도덕

- [4도02-02]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 작성 창원 도계초등학교 신동영 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새 학년이 되어 새로운 반의 아이들과 친해지는 법은 매년 겪어도 늘 어려운 일이다. 처음부터 친구를 척척 잘 사귀는 아이가 몇이나 될까? 세대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만고 진리에 가까운, 아이들의 최대 고민은 친구 관계일 것이다. 요즘은 학교마다 위클래스 상담 선생님이 따로 있다.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상담 선생님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마음 편히 위클래스 상담을 받으러 가기가 쉽지 않다. 자칫 문제아로 낙인찍힐 수도 있으니까 마음이 힘들어도 참는 아이들이 많다.

아이들은 누구에게 마음 편히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을까? 친구처럼 편한 상담 선생님은 없을까? 작가는 이러한 아이들의 마음을 담아 동화 『독수리의 오시오 고민 상담소』를 썼다. 구름이가 있는 학교에 친구처럼 반말해도 되는 독수리가 상담 선생님이로 부임했다. 나뭇가지를 열기설기 엮은 이상한 상담소에서 상담해 주는, 대머리에 깃털이 딱 하나 돋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독수리가 내 고민을 들어 준다고 한다. 얼른 가보고 싶지 않을까?

■ 학습 목표

- 글을 읽고 내용을 확인하며 나의 경험과 연결 지을 수 있다.
- 글을 읽고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말하고 의견을 파악할 수 있다.
- 작품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친구들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 수업 준비

친구는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기도 때로는 힘들게 하기도 한다. 이 책은 새 학년이 되어 친구 사귀기 때문에 고민인 구름이가 독수리를 만나 위로받고 공감을 얻으며 멋지고 당당한 어린이로 성장하는 이야기이다.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구름이에게 공감하며 자기 삶과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 고개 놀이, 이야기 상상하기, 질문하기를 하며 책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한다. 낭독극과 핫시팅으로 등장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깊이 있게 이해한다. 작품을 읽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 느낌, 의견 등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읽은 후 활동으로 ‘우리 반 고민 상담소’를 열어 함께 고민을 나누며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해줄 누군가가 곁에 있는 친구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친구의 고민을 진심으로 공감하며, 고민거리를 당당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수업 준비물 말풍선 붙임 종이, 색연필, 사인펜 등

■ 학습 과정

읽기 단계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다섯 고개 놀이하기 이야기 상상하기 차례 살펴보기	1
읽는 중	읽기 방법 정하기	2
	<1장, 2장 읽기> 내용 파악하기 경험 나누기 삶과 연결 짓기	
	<3장, 4장 읽기> 문제 만들고 답하기 낭독극 하기 원인과 결과 생각하며 정리하기 6컷 만화 그리기	3
읽는 중	<5장, 에필로그 읽기> 의견을 파악하며 글 읽기 뒷이야기 상상하기	2
	등장인물 소개하기 우리 반 고민 상담소 열기 선택1) 핫시팅 선택2) 또래 상담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기	3

Tip 책의 차례는 장을 붙여 구분하지 않았으나, 편의상 1장, 2장 등으로 나눠 놓았다.

읽기 전

1. 다섯 고개 놀이하기

■ 등장인물 맞추기

- 다섯 개의 문장을 보고 무슨 동물인지 맞춰 보세요.
- 첫 번째 문장입니다. ‘틀림없이 새였어요!’ 무슨 동물일까요?

1단계	틀림없이 새였어요!
2단계	너희들 만날 생각에 정든 사바나를 떠나왔는데 무슨 소리냐며
3단계	발톱으로 연필을 쥐기가 너무 어려워
4단계	양쪽 날개를 길게 펼쳤어요.
5단계	머리에 깃털이 없는

-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무슨 동물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표지와 제목을 보고 무슨 동물인지 함께 말해 봅시다.

Tip. 독수리의 생김새, 성격, 특징 등을 알 수 있는 이야기 속 문장을 제시하여 등장인물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이야기의 내용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책 표지를 보여주며 '독수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자연스럽게 책과 만나게 한다.

2. 이야기 상상하기

■ 삽화 보고 이야기 순서 정하기

- 함께 읽을 책은 『독수리의 오시오 고민 상담소』입니다.
- 이 책은 정유리 작가의 작품이며, 봄별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 네 장면을 보고 순서를 정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Tip. 등장인물의 표정과 몸짓, 상황이 잘 나타나 있는 장면을 제시하여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한다. 이야기 순서를 정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짝이나 모둠활동을 추천한다. 말풍선을 붙여 보거나 3~5문장 정도의 짧은 글쓰기를 할 수 있다.

3. 차례 살펴보기

■ 차례 읽기

- 소리 내어 다 같이 차례를 읽어 봅시다.
- 차례를 보고 어떤 이야기일지 생각해봅시다.

■ 삽화를 보고 질문 만들기

-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질문을 말해 봅시다.

예) 오봉초등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운동장에 있는 둥그런 것은 무엇일까?

아이들은 몇 학년일까?

여자아이는 무엇을 본 것일까?

경비 아저씨가 왜 새를 보고 있을까?

강아지는 왜 정문 앞에 서 있을까?

Tip. 각 장의 제목마다 ‘독수리’가 들어간다. 문장을 소리 내어 읽으면 독수리가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인물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펼친 면에 배경이 되는 학교와 인물이 그려져 있다. 삽화를 보고 질문을 만들면서 누가 나오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읽는 중

1. 읽기 방법 정하기

■ 소리 내어 읽기

- 1장 사바나에서 온 독수리를 읽어 봅시다. 먼저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로는 선생님 소리를 듣고 눈으로 글자를 따라 읽으세요.

Tip. 글의 도입 부분은 이야기의 집중도를 높이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생님이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도입 부분이 지나면 선생님과 학생 또는 짝과 함께 한 문장씩 번갈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대화문이 많으므로 등장인물의 역할을 정해 큰따옴표가 있는 부분은 그 역할에 해당하는 학생이 읽고 나머지 부분은 교사나 다른 학생이 읽을 수도 있다.

2. 1, 2장 내용 파악하기

■ 1, 2장을 읽고 내용 파악하기

- 수업이 끝나고 운동장을 걸어가고 있는 아이는 누구인가요?
예) 구름이에요.
- 구름이를 누가 불렀나요?
예) 독수리가 불렀어요.
- 독수리가 구름이에게 어떤 부탁을 하나요?
예) ‘오시오 고민 상담소’라고 적어달라고 했어요.
- 구름이는 독수리에게 어떤 고민을 털어놓았나요?
예) 2학년애 올라온 뒤로 친구를 못 사귀고 있다고 했어요.
- 독수리는 구름이의 고민을 듣고 어떤 말을 해주었는지 책에서 찾아봅시다.

“너를 좋아하건, 좋아하지는 않지만 싫어하지도 않는 아이들한테
네가 먼저 ()면 되지.”
“세상은 넓고 친구는 많다. ()의 너를 좋아해 줄 친구들을 만나.
그래서 내가 사바나에서 독수리보다 두더지랑 더 친하게 지냈지.”

3. 1, 2장 경험 나누기

■ 경험 나누기

- 구름이는 독수리를 어떻게 도와주나요?
예) 글씨 연습을 도와줘요. 휴대폰으로 메시지 보내는 방법을 알려줘요.

- 독수리는 구름이에게 어떤 생일 선물을 해주나요?

예) 구름이를 안아줘요. 등에 태워서 하늘을 날았어요.

- 여러분은 친구를 도와주거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예) 미술 시간에 친구에게 색종이를 빌려줬어요. 친구가 고맙다고 말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보건실에 갈 때 친구가 함께 가주었어요. 나도 다음에 친구가 아프면 같이 보건실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비가 왔는데 친구가 우리 집까지 우산을 씌워 줬어요. 친구 덕분에 비를 맞지 않아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4. 1, 2장 삶과 연결 짓기

■ 나의 고민은?

- 독수리는 고민이 있을 때는 언제든 오시오 고민 상담소를 찾아오라고 해요. 여러분이 오시오 고민 상담소에 간다면 어떤 고민을 말할 것 같은지 고민 쪽지에 써 봅시다.

예) 학원에 다니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계속 가라고 해서 싫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수학을 잘하고 싶은데 어려워해서 힘들다고 말할 것 같아요.

사춘기 형이 나에게 화를 내서 기분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Tip. 1장에는 독수리가 아이들의 편한 친구가 되어 고민을 들어 주고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준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마음의 위로를 받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는다. 아이들의 삶과 연결하여 현재 고민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 활동은 읽은 후 '우리 반 고민 상담소' 활동으로 연결하도록 한다.

5. 3, 4장 내용 파악하기

■ 문제 만들고 답하기

- 짝과 함께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을 서로 묻고 답해 봅시다.

예) (문제) 독수리가 사라지자 구름이는 누구를 찾아갔나요?

(답) 교장선생님

(문제) 아이들은 오시오 상담소에 무엇을 붙였나요?

(답) 편지

(문제) 구름이는 이상한 문자를 받고 휴대폰으로 무엇을 검색하나요?

(답) 독수리

Tip. 짝끼리 질문하고 답하며 읽은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이 활동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퀴즈 형식이라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

6. 3, 4장 낭독극 하기

■ 등장인물이 되어 낭독극 하기

- 46~48쪽 구름이와 교장 선생님의 대화를 짝과 함께 역할을 나누어 읽고 낭독극을 해 봅시다.

- 구름이와 교장 선생님의 대화를 읽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예) 교장 선생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구름이가 멋있어요.

내가 구름이가 된 것처럼 교장 선생님에게 화가 나는 것 같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학생에게 함부로 말씀하시고 불친절하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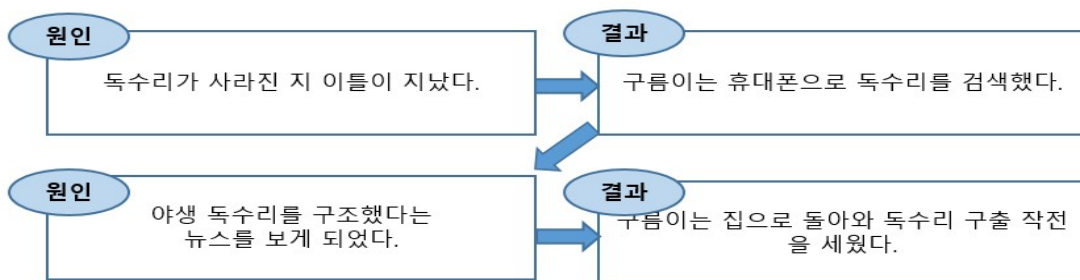
아무리 화가 나도 교장선생님께 소리를 지르는 구름이의 행동은 잘못된 것 같아요.

Tip. 낭독극은 기본적인 연습만 한 상태에서 대본을 보면서 발표하는 것으로 대본 쓰기 외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다. 등장인물의 감정과 느낌을 살려 실감 나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친구들의 낭독극을 보면서 등장인물의 성격과 특징, 분위기 등을 알 수 있게 한다.

7. 3, 4장 독수리 구하기 대작전

■ 원인과 결과 생각하며 정리하기

-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4장을 읽어 봅시다.
- 구름이가 경험한 일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정리해 봅시다.



■ 만화 그리기

- 구름이는 독수리 구출 작전을 세웠어요.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하며 구름이가 독수리를 어떻게 구출하는지 6컷 만화로 그려봅시다.
- 완성된 작품을 보며 독수리 구출 작전에 관해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Tip. 글의 내용을 만화로 표현한 뒤 일이 일어난 까닭과 그 까닭으로 생긴 일을 중심으로 친구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그래서', '때문에', '왜냐하면' 과 같은 이어주는 말을 사용하며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지도한다.

8. 5장 의견 파악하기

■ 의견을 파악하며 글 읽기

- ‘학교에서 독수리와 아이들이 같이 지내야 하는가?’에 대한 구름이와 교장 선생님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구름이	독수리와 같이 지내야 한다. 독수리는 우리 이야기를 잘 들어 준다. 독수리가 없으면 우리는 고민을 이야기할 수 없다.
-----	---

독수리의 야생성을 지켜 줘야 한다. 독수리의 발톱에 아이들이 다칠 수 있다. 운동장에 고민 상담소를 세워 두면 운동장을 쓸 수 없다.	교장 선생님
--	--------

- 구름이와 교장 선생님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예) 나는 구름이와 생각이 같아. 왜냐하면 독수리가 고민을 들어 주고 해결해주면서 친구들의 학교 생활이 즐거워졌기 때문이야.
나는 교장 선생님과 생각이 같아. 왜냐하면 독수리가 아무리 친절하더라도 발톱이나 부리에 아이들이 다칠 수 있고 독수리는 학교가 아닌 숲에서 살아야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야.

9. 에필로그 뒷이야기 상상하기

■ 뒷이야기를 상상하여 말하기

- 구름이는 오시오 고민 상담소를 들어가는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봤어요. 뒷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상상해보고 발표해 봅시다.

예) 오시오 고민 상담소에 들어온 교장 선생님은 요즘 계속 머리카락이 빠져 대머리가 될까 봐 걱정이라고 했어요. 자신도 대머리이지만 친구들이 모두 자신을 사랑해 준다고 했어요.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오봉초등학교는 고민을 듣고 해결해주는 독수리 덕분에 어린이와 선생님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었어요. 가끔 친구들이 고민이 있거나 다툼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독수리가 친구들을 든든하게 도와주고 지켜줘요. 독수리가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고 구름이는 나중에 커서 상담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오시오 고민 상담소를 찾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선생님들도 고민 상담소를 찾기 시작했어요. 점점 바빠진 독수리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구름이가 해결 방법을 제시해요. 독수리의 친한 친구였던 두더지가 독수리를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사바나에서 온 두더지는 독수리가 상담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뒷이야기 상상하기 예시 질문>

- 교장 선생님은 어떤 고민을 말했을까?
- 오시오 고민 상담소는 계속 운영되었을까?
- 사바나를 떠난 독수리는 외롭지 않았을까?
- 구름이는 새 학년이 되어 친구를 잘 사귀었을까?

Tip. 글을 읽고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며 말하는 것을 ‘예측하기’라고 한다. 책을 읽은 후 뒷이야기를 상상하기 위해 학생은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고 사고를 확장하며 인물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다. 뒷이야기 상상하기를 위해 교사는 예시처럼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읽은 후

1. 등장인물 소개하기

■ 등장인물 소개하기

-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성격이나 특징을 써 봅시다.

예) 독수리 :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 준다. 친절하다. 재미있다. 사바나에서 왔다 등

구름이 : 친구를 사귀지 못해 힘들어했다. 용기 있다. 당당하다. 의리 있다. 등

교장 선생님 :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 주지 않는다. 불친절하다. 화를 잘 낸다. 등

다솜이 : 다정하다. 구름이를 도와준다. 의리 있다. 등

-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저는 독수리가 가장 좋아요. 독수리는 남을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구름이가 가장 좋아요. 독수리를 구출하는 모습이 용기 있고 멋있었기 때문이에요.

Tip.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특징을 찾아보며 인물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인물에게 배울 점은 무엇인지 인물에게 찾을 수 있는 미덕의 가치는 무엇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우리 반 고민 상담소 열기 (선택 활동1 - 핫시팅)

■ 독수리 초대하기

- 독수리에게 궁금한 것이나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해 독수리에게 말해 봅시다.

예) 사바나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어?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너만의 비법이 있니?

구름이와 함께 하늘을 날 때 어떤 기분이었어?

야생 동물 센터에 갔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

- 우리 반 친구들의 고민을 독수리에게 말해 봅시다. 독수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결해줄지 잘 들어 봅시다.

Tip. 1, 2장을 읽으면서 적었던 고민 쪽지를 활용한다. 고민 쪽지를 모두 모아 교사가 학급의 공통된 고민 몇 가지를 뽑거나 학생이 무작위로 고민 쪽지를 뽑을 수도 있다. 고민을 말하고 싶은 사람이 스스로 고민을 말해도 된다. 학생의 성향이나 학급 분위기를 고려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 상담소를 열 수 있을 것이다.

Tip. 독수리가 되어 답을 할 사람을 뽑을 때는 한 명만 뽑지 말고 2~3명을 뽑으면 좋다. 한 명이 답변하기 힘들어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답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독수리가 된 친구는 이야기에 근거하여 답을 해야 한다. 글에서 너무 벗어난 답을 하거나 답을 하기 어려워하면 다시 이야기 속으로 돌아가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답변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3. 우리 반 고민 상담소 (선택 활동2 - 또래 상담)

■ 또래 상담하기

- 우리 반 친구들이 쓴 고민 쪽지입니다. 친구들의 고민 쪽지를 읽고 오시오 고민 상담소의 독수리처럼 붙임 종이에 해결 방법을 써서 붙여 주세요. 여러분의 해결 방법이 고민이 있는 친구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Tip. 나와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이 나의 고민을 듣고 상담하는 것을 또래 상담이라고 한다. 책을 깊게 읽으며 등장인물로부터 친구의 고민을 들어 주고 도와주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이 활동으로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4.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기

■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건네기

- 독수리가 구름이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이에요. 다시 한 번 읽어 봅시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예) 기분이 좋아요.

위로받는 느낌이에요.

친구가 해주는 말 같아요.

진심이 느껴져요.

- 멋진 친구
- 대머리독수리가 날개로 내 등을 토닥였어요.
- 우리 친구 하자.
- 친구야, 생일 축하해.
- 구름아! 정말 정말 보고 싶었어!
- 고마워. 나도 약속해. 너희들 고민이 없어질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소극적이었던 구름이는 독수리 덕분에 자기 의사를 분명히 말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독수리를 구출하는 구름이의 모습은 정말 멋졌어요. 독수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구름이를 변화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자신 또는 친구에게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 봅시다.



Tip. 친구와 마주 보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고받거나, 쪽지에 적어 주고받는다. 미술 교과와 연계하여 글자 디자인을 하여 교실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보고 익히게 할 수도 있다.